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0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 www.jri.re.kr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2.11~2025.12.17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령(박진경/안내판/추도비/국가유공자), 오영훈(성과/평가), 기반, 대응, 도로
경제·관광	관광객, 수출, 기반, 투자, 성장
지역·사회	국가유공자(박진경), 끽자왈, 구조, 전환, 학생

※ 분석 기간 : 25.12.11.~25.12.1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령(박진경/안내판/추도비/국가유공자)	-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 '진실의 안내판' 설치 강행 -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 제주도의회 여야 간 4·3 역사 해석 및 안내판 설전
	오영훈(성과/평가)	- 제주 먹거리 정책 전국 평가 'A등급' 역대 최고 성과 -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 전국 최우수상 수상 - 민관 협력 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및 환경 행정 평가
	기반	-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 아우르는 공공 복지 체계 구축 - 제주신항 건설을 위한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추진 - 밭기반 및 양봉 등 1차 산업의 생산·유통 기반 강화
	대응	- 제주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 행정 대응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 혐오·비방성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전문 심의 체계 도입
	도로	- 제주 주요 도로 이용자 만족도 3년 연속 상승 및 체감도 조사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보행 환경 개선 - 방치된 빈집 철거 후 공공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성과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누적 관광객 4년 연속 1300만 명 돌파 및 증가세 전환 - '2026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 선포와 체류형 관광 강화 -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및 마케팅 확대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사상 첫 3억 달러 돌파 및 반도체 호조 지속 - 항공기 부품 및 수산 가공품 등 수출 품목의 질적 다변화 -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 준공 및 에너지 생태계 확장 -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구 및 전력증개 플랫폼 실증 - 바이오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산업 고도화 지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에너지·바이오 기업의 제주 신설 투자 협약 체결 - 2026년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 원년 선포 및 펀드 조성 - 투자 기업 지원 예산 집행률 개선 및 패러다임 전환 요구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농산물 프리미엄화 및 식품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 제주더큰내일센터 및 MICE 산업 청년 인재 육성 성과 - 전국 최고 육아휴직 사용률 기록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국가유공자(박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제주 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파장 -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의 비' 설치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법적 보완 및 서훈 취소 제도 개선 논의
	꽃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꽃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 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성과 - 꽃자왈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의 단단한 네트워크 구축 - 꽃자왈 보전을 위한 연구 강화 및 사유지 공유화 패러다임 지속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상 선원 실종 및 침수 사고에 대한 해경의 신속한 구조 활동 - 항만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항만의용소방대 공식 출범 - 도심 내 교통사고 및 고립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구조 및 안전 조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제정 환영 - 여행자 건강 중심의 국가 검역체계 전면 개편 및 제주공항 시범 사업 - 제주대학교의 '글로벌 노마드 대학' 전환을 통한 미래형 대학 모델 구축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학생들의 나눔 실천과 독서마라톤을 통한 글로벌 도서 기증 - 학교 내 외부인 무단 침입 사건에 따른 학생 안전 및 출입 통제 강화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형 협약고 추진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2월 4일~12월 1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98건임

- 정치·행정 분야 329건, 경제·관광 186건, 지역·사회 283건임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령(박진경/안내판/추도비/국가유공자), 오영훈(성과/평가), 기반, 대응, 도로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령(박진경/안내판/추도비/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 '진실의 안내판' 설치 강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와 4·3유족회 등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그의 강경 진압 행적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함. 이는 추도비의 내용이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와 배치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임을 명시함.· 안내판에는 박 대령이 43일간의 재임 기간 중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발언과 함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주범이라는 객관적 기록이 담김. 오영훈 지사는 이를 통해 4·3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제주도민의 공분과 비판을 수용하여 보훈부에 취소 검토를 지시함. 앞서 보훈부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을 승인했으나, 4·3 학살 책임자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 정의에 반한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함. ·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과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박 대령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살펴보기 시작함. 서훈 취소가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 또한 소급하여 박탈될 전망이며, 제주 사회는 이를 역사 정의 실현의 첫걸음으로 환영함. - 제주도의회 여야 간 4·3 역사 해석 및 안내판 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내판 설치를 환영하며 추도비 철거까지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의 역사 해석 개입을 우려하며 충돌함. 민주당 측은 30만 도민이 공적을 기린다는 추도비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강조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당위성을 옹호함. ·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도 도정이 특정 관점의 안내판을 세우는 것은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 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요구함. 이 과정에서 박진경 대령의 공과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의회 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됨.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먹거리 정책 전국 평가 'A등급' 역대 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도정의 핵심 정책 성과를 입증함. 이는 생산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 중심의 '제주형 먹거리 보장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 오영훈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공공급식 로컬푸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민의 식탁을 변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됨.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임. -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 전국 최우수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민생 행정의 혁신성을 인정 받음. 응급의료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힘. ·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 확대와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을 통해 환자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가 높게 평가됨. 오 지사는 도민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이자 각종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도정의 자부심임을 강조함. - 민관 협력 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및 환경 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도정은 제주은행과 기업 참여 1호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협약을 체

	오영훈(성과/평가)	<p>결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달성을 기반을 마련함. 이는 단순한 산림 조성을 넘어 생태계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연계한 환경 경영의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면,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미래 산업 투자에 대한 도민 체감 혜택 부족과 신규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등 비판적 의견도 제시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남김. 도정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임.
정치·행정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 아우르는 공공 복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개관하며 보호, 입양, 여가, 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인프라 기반을 본격적으로 완성함. 유기동물 보호의 규모화를 통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건강관리 및 입양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도민 일상에 밀착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2026년 공설 동물장묘시설 준공 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행정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오 지사는 이를 펙션 업의 지역 파급 효과와 연결하겠다고 밝힘. - 제주신항 건설을 위한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약 3.8조 원 규모의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 지방관리항인 제주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하여 매년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려는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함.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방파제 등 기반 시설을 국가가 직접 맡아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가 관리해왔으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전환 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도는 해양수산업계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 - 밭기반 및 양봉 등 1차 산업의 생산·유통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는 75억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농로를 확·포장하는 등 밭기반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영농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토대가 됨. 제주시 또한 벌꿀 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검사비 및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생산 이력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주 벌꿀의 브랜드 기반 및 프리미엄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임. 이를 통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 행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시작으로 함병선 장군 공적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내 시설물에 안내판 설치 및 이설 작업을 추진하며 역사적 진실 수호에 적극 대응함. 이는 최근 잇따른 왜곡 현수막 게시 등 4·3 혼들기 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치임.

정치·행정	<p>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회에서도 '제주 4·3 역사왜곡 처벌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며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음. 오 지사는 4·3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강조함.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11년간 묶여 있던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역 경제 침체와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내년 1월까지 주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상반기 중 해제 범위를 결정할 방침임. 도의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제2공항 추진 방향이 연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주문함.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힘. - 혐오·비방성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전문 심의 체계 도입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고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함.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투명하게 걸러내기 위함임. 정당법상 법 적용이 배제되던 정당 현수막 등도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심의 체계를 고도화함. 도는 정기 심의 외에도 비대면 수시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민원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계획임.
도로	<p>- 제주 주요 도로 이용자 만족도 3년 연속 상승 및 체감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250명을 대상으로 평화로 등 5개 주요 도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8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화로가 가장 인상적인 도로로 꼽힘. 반면 도로교통의 원활성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등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이용자들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확충, 노면 안내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품질 향상을 요구함. <p>-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보행 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남문로터리 인근 남성로25길 등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고 학생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함. 8m 미만의 협소한 도로 폭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된 잔여 공간에 보행로와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8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최종 가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설물 정비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이를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치·행정	도로	- 방치된 빈집 철거 후 공공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성과 · 제주시가 도심 및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빈집 42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공 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하여 정비 사업을 마무리함.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공공 자원화한 생활 행정의 우수 사례임. ·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하며, 도로 개설 및 포장·보수 사업 등에 9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임.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등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함.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수출, 기반, 투자, 성장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누적 관광객 4년 연속 1300만 명 돌파 및 증가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적 관광객이 1313만 명을 넘어서며 4년 연속 1300만 명을 돌파함. 12월 들어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등하며 관광 시장 회복의 신호를 보임. · 내국인 여행 수요 회복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며 동반

	<p>회복한 결과로 분석됨. 지역경제 지표인 소비와 고용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 선포와 체류형 관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자 10만 명 달성을 계기로 2026년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의 해로 선포함. 계절별 테마 콘텐츠와 웰니스, 자연 체험 등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요의 계절 편중을 완화할 계획임. · 단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체류 시간과 1인당 소비액을 늘려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함. 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분석과 소비 행태 분석을 고도화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일 방침임. -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및 마케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페이와 알리페이플러스 등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118억 원을 돌파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가맹점 수가 1년 사이 4천 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지 도약의 기반이 됨. ·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 '따중디엔핑'과 협력한 원도심 활성화 캠페인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핵심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음.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사상 첫 3억 달러 돌파 및 반도체 호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수출액이 11월 기준 누적 3억 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룸. 이는 2026년 목표를 1년 앞당긴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임. ·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61.7%를 차지하는 1억 8673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임. - 항공기 부품 및 수산 가공품 등 수출 품목의 질적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품목 편중에서 벗어나 항공기 부품(수출 3위), 동스크랩, 의약품, 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남. 특히 넙치 원물 위주에서 수산 가공품 수출이 829.3% 급증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확인됨. · 제주 본사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농수산물의 동반 성장이 가속화됨. 1차 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가공 및 바이오 산업으로 수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 지표임. -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 운항으로 물류비 62% 절감과 운송 시간 2일 단축의 기반을 마련함. 부산항을 거치지 않는 직항로 확보를 통해 제주 기업들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됨. · 현재 초기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 현지 바이어 매칭과 상품 홍보를 강화하여 항로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 중임. 내년에는 물동량 유치를 위한 집중 활동 예산을 투입해 수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임.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 준공 및 에너지 생태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6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됨. 이는 공기업 주도의 국산 기자재 활용과 지역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모델로 조성되어 공공성을 강화함.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 준공 및 에너지 생태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6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됨. 이는 공기업 주도의 국산 기자재 활용과 지역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모델로 조성되어 공공성을 강화함.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 준공 및 에너지 생태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6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됨. 이는 공기업 주도의 국산 기자재 활용과 지역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모델로 조성되어 공공성을 강화함.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산간 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가동되면 태양광 발전량이 800㎿에 육박하며 2035년 재생에너지 7GW 목표를 뒷받침함.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제주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물리적 기반인 전망임. -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구 및 전력증개 플랫폼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플랫폼 기업 브이젠(주)과 투자협약을 맺고 AI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해 전기차를 발전소처럼 활용하는 신기술을 시범 운영하며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함. 이러한 기술 기반은 상장기업 육성과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바이오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산업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 20곳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재직자 교육과 활용 실습을 병행하여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 AI와 바이오 산업의 융합은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식 기반이 됨. 이는 향후 농업, 기후, 관광 등 타 분야로 AI 기술 도입을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경제·관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에너지·바이오 기업의 제주 신설 투자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에너지 기업 메디선(MediSun)과 1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 R&D 센터와 공장을 구축함. 해수 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기술 실증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됨. 용암해수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물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첨단 제조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함. 기술 고도화와 제품 생산을 연계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 원년 선포 및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을 지원함. 일회성 지원을 넘어 우수 업체를 ‘스타 크리에이터’ 앵커 기업으로 키워 지역 가치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임. 온·오프라인 플랫폼 연계와 전국 단위 페스타 개최를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활용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크리에이터 중심의 경제를 구축함. - 투자 기업 지원 예산 집행률 개선 및 패러다임 전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회에서는 상장기업 육성 공약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함. 공장 설비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 콘텐츠 등 제주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로의 전환이 필요함. 유치 기업이 향토 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함. 기회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투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농산물 프리미엄화 및 식품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광동제약,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식품 기업과 협약하여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함. 1차 원물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푸드

경제·관광	성장	<p>테크 기술과 융합한 간편식 및 음료 개발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가공센터와 연구 지원 센터 조성을 통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 가능 농업을 구축함. 고품질 농축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내실을 다짐. <p>- 제주더큰내일센터 및 MICE 산업 청년 인재 육성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모집과 취·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함. 창업 기업들이 태국, 이탈리아 등 해외 박람회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음. · MICE 및 관광 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올해 13명의 채용 실적과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기록하며 지역 활력을 높임. 청년 인재가 제주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 <p>- 전국 최고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육아휴직 사용률이 39.3%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15.5%)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업주 지원금 등 다양한 장치들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 지표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공급과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국가유공자(박진경), 곶자왈, 구조, 전환, 학생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 · 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 · 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국가유공자 (박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제주 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의 양민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제주도정과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히 규탄함. ·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태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보훈부에 지시하였으며, 전교조 등 교육계도 가해자를 예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함. -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의 비' 설치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그의 실제 행적과 4·3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여 객관적 사실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림. · 함병선 공적비 등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소지가 있는 다른 기념물들에 대해서도 안내판 설치나 4·3평화공원 이설 등 순차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법적 보완 및 서훈 취소 제도 개선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주를 방문해 사과하면서도 현행법상 취소의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함. · 국가폭력 가해자가 유공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심사 기준으로 포함하는 등 보훈 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역사 인식 강화가 과제로 제시됨.
	꽃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꽃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 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추진한 '같이' 캠페인에 도내외 69개 기관과 630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총 2억 93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꽃자왈 보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확인함. · 재단은 '2030년 사유지 꽃자왈 50만 평 공유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후원 외에도 워킹챌린지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전 가치 인식을 확산시킴. - 꽃자왈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의 단단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기업체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꽃자왈 지키기에 동참하였으며, 특히 삼성여고 학생들은 공모전 수상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됨. · 꽃자왈 서포터즈가 누적 1370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단순한 기부를 넘어 꽃자왈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직접 보호 활동에 나서는 시민 참여 기반이 더욱 견고해짐. - 꽃자왈 보전을 위한 연구 강화 및 사유지 공유화 패러다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꽃자왈의 생태적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가치 및 연구 공유화라는 3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전

	곳자왈	<p>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곳자왈을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유화 운동을 지속하며 곳자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해상 선원 실종 및 침수 사고에 대한 해경의 신속한 구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항 인근에서 중국선적 크레인바지선 침수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 헬기가 급파되어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5명 전원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무사히 구조함. 해경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신속한 판단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으며,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중국 영사 측에 신변을 안전하게 인계하며 조치를 완료함. 항만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항만의용소방대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항만 지역의 특수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입동과 일도동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항만남녀의용소방대를 창설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섬. 이번 의용소방대 신설로 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화재 예방부터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까지 항만 현장에 밀착된 전문적인 구조 및 구급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도심 내 교통사고 및 고립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구조 및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깔린 훨체어 이용자를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하여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체계가 긴박하게 작동함. 건설 현장에서 뜻에 눈이 찔린 작업자나 도로 강풍 피해 등 다양한 현장 신고에 대해 소방 당국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수행하며 도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함.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제정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의회에서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 중 고용 안정을 돋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통과되자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 근거 마련을 환영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기금 설치와 교육 훈련센터 건립 등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함. 여행자 건강 중심의 국가 검역체계 전면 개편 및 제주공항 시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차단 위주에서 여행자 건강 관리로 검역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제주공항이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공항에 포함됨. 2027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보유한 제주의 검역 역량을 강화하고, 여행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검역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제주대학교의 '글로벌 노마드 대학' 전환을 통한 미래형 대학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대학교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어디서나 배우는 개방형

	전환	<p>학사인 ‘노마드 대학’ 설립 구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자율학부 등 4개 학부로의 학사 구조 전환을 추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강의의 영어 진행 및 해외 대학과의 학점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6년 개설을 목표로 하며, 제주 전역을 캠퍼스로 활용해 학습과 휴식을 결합한 런케이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임.
지역·사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학생들의 나눔 실천과 독서마라톤을 통한 글로벌 도서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교육청은 독서마라톤 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 700여 권을 우즈베키스탄 대학교에 기증하여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읽은 감동을 나누는 교육적 성과를 거둠.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교육을 넘어 해외 기관에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제주 교육의 나눔 가치를 세계로 전달하는 계기가 됨. - 학교 내 외부인 무단 침입 사건에 따른 학생 안전 및 출입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외부인이 침입해 수업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보호를 위한 출입문 잠금 및 방문증 패용 등 전면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시행됨. 교육 당국은 외국어 안내문 게시 및 CCTV 점검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외부인 발견 시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함.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형 협약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와 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마이스터고’ 모델을 협약형 고등학교를 통해 발전시키기로 하고 협력을 강화함. 학교와 기업, 대학이 협약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